

□ 연구 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미국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 연구센터로 구성된 본 연구소는 ‘태평양의 세기’로 기록될 21세기에 태평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절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해 인적·문화적, 물질·경제적, 제도적 연계성(connectivity)의 시간적·공간적 직조물로 ‘경위(經緯)의 태평양’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경위(經緯)는 씨줄과 날줄, 경도와 위도,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복합적으로 함의한다. ‘경위(經緯)의 태평양’에 대한 이해는 ①(진단) 태평양을 횡단하는 다중연계성(multiple connectivity)의 역사적 유형과 진화 그리고 현재적 재편에 대한 역사기하학적(historical geometric) 분석 ②(확장) 다중연계성의 역사적 조직 형태가 낳은 사회적 공간의 형성과 변형에 대한 공간동역학(spatial dynamics) 분석 ③(대안) 개방적·포용적 연계성에 기초한 평화공간의 창출과 확장을 통한 태평양의 평화화(pacification of the Pacific Ocean)로 구체화된다. • 본 연구는 연계성(connectivity)을 정치학·경제학·사회학·인류학·역사학 등으로 구성된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를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로 삼아 다중연계성(multiple connectivity)의 역사기하학(historical geometry)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기하학은 역사적 현상을 기하학적 관계·유형·공간구조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제시한 연계성의 유형화를 참조하여 인적·문화적 연계(people-to-people cultural connectivity), 물질·경제적 연계(material economic connectivity), 제도적 연계(institutional connectivity)를 구분하고 수세기에 걸친 이주가 형성한 풀뿌리 연계성(grass roots connectivity), 16세기 갤리온 무역에서 20세기 컨테이너 무역에 이르는 상업적 연계성, 19세기 해저 전신망에서 21세기 광케이블망에 이르는 물리적 연계성 등의 역사적 유형과 진화 그리고 현재적 재편과정을 분석한다. 이는 누가 어떤 연계망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변형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탐구로 구체화될 수 있다. • 국경(border)을 넘나드는 사람, 사물, 생각이 만들어 내는 다중적 연계는 특정 지역, 국가, 도시의 발전과 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연계의 효과를 다양한 행위자의 공간적 실천에 의한 다중 스케일 공간의 형성과 변형이라는 공간동역학(spatial dynamic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어떤 연계성이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사회공간을 형성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특정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조된 배타적 연계성과 식민공간, 장기간에 걸친 이주의 풀뿌리 연계성과 혼종공간, 복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상업적 연계성과 교역공간, 연계성의 국지적 집중과 허브공간, 개방적·포용적 연계성과 평화공간 등의 역사적 상관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는 연계성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미·중 경쟁과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로 인해 태평양이 ‘문명의 교차로’(crossroad of civilization)에서 ‘분절된 전장’(fragmented battle field)으로 변질될
--------------------------------	---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서 평화공간의 창출과 확장을 통해 태평양을 태평(太平)하게 만들 조건들을 탐색한다. 우선 본 연구는 호혜적 평화공간의 역사적 사례들을 발굴할 것이다. 나아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연계를 통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연계성의 자의적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서 집합적 복원력(collective resilience) 이니셔티브를 형성하여 태평양을 ‘문명적 공유지’ (civilizational commons)로 발전시킬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기대 효과 (한글 2,000자 이내)	• 본 연구는 특정한 국가, 지역,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학 연구에서 벗어나 인적·문화적 연계성, 물적·경제적 연계성, 제도적 연계성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성의 유형과 진화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연계성에 주목하는 이 같은 패러다임은 냉전 시기 현대화 패러다임의 제1세대 지역연구나 냉전 이후 민족 국가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제2세대 지역연구와 구별되는 제3세대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경위(經緯)의 태평양’을 화두로 미국 서부와 하와이 그리고 일본이 선도해 왔지만 최근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태평양 주변 지역연구(Trans-Pacific Studies)의 ‘탈식민화’ 과정에 주목한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참여하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연계의 그물망에 대한 한국의 인식지평을 확대시키고 태평양 연계성에 대한 한국적 관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연계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연계를 통한 평화’의 유지·확장이라는 비전에 기초해서 다중연계의 구체적 양상과 형세(configuration)를 규명하여 태평양에서의 대결과 쟁투를 ‘평화화’(pacification)하는 데 기여할 평화공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에 따라 태평양의 지정학적 균열이 태평양을 ‘전장’ (battle field)으로 만들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적 사회를 창조·지속시키는 태도, 제도, 구조로서의 ‘적극적 평화’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확산시킬 것이다. • 본 연구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태평양 허브 국가로서 한국에 고유한 연계성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태평양 연계성을 형성·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미·중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집합적 복원력(Collective Resilience) 이니셔티브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들의 대안적인 제도적 연계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또는 가치 연쇄가 재편되는 기본적인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태평양 연계성의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태평양을 횡단하는 물적·경제적 연계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인적·문화적 연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한국 산업의 공급망을 여타 태평양 주변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향성이 제안될 것이다.

	•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의 주요 해양도시를 연계성의 주요 결절점으로 파악함으로써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부산의 정체성 형성과 그것에 기초한 태평양 연계성 전략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하이, 요코하마, 호치민, 마닐라, 카오슝 등 20여개 부산의 해외자매도시가 태평양 해양도시라는 점에 착안해서 태평양 해양도시들의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Trans-Pacific City Network)의 지적·문화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 연계의 중심축인 싱가포르-부산 연계에 대한 분석은 부산과 동남아시아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 유일의 UN 평화공원 소재지인 부산을 포용적 평화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중연계망은 수많은 행위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거대한 직조물(‘경위(經緯)의 태평양’)로서 정치적·경제적 권력과 위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특정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조·강제되지도 않는다. 갤리온 선(船)에 의해 멕시코-필리핀-중국의 교역망이 형성되었던 ‘대항해시대’ 이후 인적·문화적, 물적·경제적, 제도적 연계성들은 장기-지속하며 전쟁과 같은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과 ‘임계사건’을 계기로 계속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주와 같은 장기-지속하는 풀뿌리 연계성(grass roots connectivity)은 연계성 복원력의 기초가 되었다. • 태평양을 횡단하는 다중연계성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는 500년에 걸쳐 형성된 해양 연계성으로서 태평양 주변 4대 지역을 연결하는 원형을 취한다. 위상학적인 측면에서 이 같은 다중심 연계성은 복원력이 가장 높은 형태로 간주된다.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태평양 횡단 전진망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 같은 유형의 연계성은 21세기 해저 광케이블의 연계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적 진화 양상을 보인다. 장기-지속하는 인적·문화적 연계는 많은 경우 해운이나 무역·상품연쇄 같은 물적·경제적 연계와 중첩되며 최근의 시데이터-클라우드 연계 등과도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화교 연계성처럼 국지적으로 폐쇄적인 연계망이나 17세기 스페인의 갤리온 무역망처럼 지역적 차원에서 폐쇄적인 연계망도 존재한다. • 태평양을 횡단하는 인적·문화적 연계, 물적·경제적 연계, 제도적 연계 등은 고유한 방식으로 도시, 국가, 지역 등 다중 스케일의 공간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다. 17세기 스페인 제국에 의해 형성된 태평양의 배타적 연계성은 라틴아메리카와 필리핀에 식민공간(colonial space)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 중국의 태평양 진출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장기간에 걸친 이주의 풀뿌리 연계성은 이주가 집중되는 태평양 주변 해양 관문도시에서 고유한 형태의 혼종공간(hybrid space)을 창출해왔다. 여러 국가에서 몰려든 복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상업적 연계성은 환태평양 중계항(entrepo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역공간을 창조했다.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 여러 연계성이 국지적으로 집중되면서 관문도시와 같은 허브공간이 형성되기도 했다. 개방적·포용적 연계성은 상호번영의 관점에서 평화가 유지·확산되는 평화공간의 형성과 강한 역사적 상관을 보인다.